

## 소멸된 육체와 위로의 언어들\*

- 잠부(潛夫) 이정구(李鼎九)의 죽음이 야기한 논쟁을 중심으로 -

전수경\*\*

### <차례>

1. 서론
2. 이정구의 죽음과 『일성록』을 통해 본 당대 ‘효’에 대한 인식
3. 『제만(祭挽)』에 모인 위로의 언어들
4. 백담시사의 이정구 흔적 지우기
5.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전근대 사회에서 ‘효’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와 그 개념을 공유한 구성원들의 행동 양태에서 드러나는 이질적인 반응을 살펴 보았다. 특히, “身體髮膚는 受之父母니 不敢毀傷이 孝之始也라”는 『효경(孝經)』의 선언적 명제와, “樂而不淫, 哀而不傷.” 즉 감정을 절제하라는 규칙 사이에서 전 근대 사회가 제시한 행동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사회가 전근대의 유산으로서 계승한 효의 보편적 인식이 과연 전근대의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고 발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효’라는 개념이 지닌 통상적인 사례에서 벗어나는 특수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전근대 사회에서 효의 본질을 다룬 다양한 사례들과, 그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미묘하게 어긋난 시선들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지점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본 논문은 18세기 조선 후기 인물인 잠부(潛夫) 이정구(李鼎九, 1756~

\* 본고는 한국고전연구학회 2024년 하계학술대회(2024.08.20.) “물질로서의 인간, 그리고 고전문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1783)의 삶과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록인 『제만(祭挽)』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정구는 유복자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생애 내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다가 28세에 강에 투신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그의 죽음이 효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쟁은 당시 많은 이들 사이에서 논의되었으며, 그를 애도하는 이들과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이들의 입장 차이는 『제만』에 기록된 제만과 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구의 삶과 죽음을 통해 전근대 사회에서 ‘효’의 개념이 가지는 복잡성과 다양한 인식 차이를 조명하고, 효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재검토함으로써, ‘효’라는 개념이 통상적인 사례와 특수한 사안에서 드러나는 연속성과 단절의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잠부(潛夫) 이정구(李鼎九), 『제만(祭挽)』, 백담시사, 효, 자살, 『일성록(日省錄)』

## 1. 서론

본고는 전근대시기 ‘효’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와 그 관념을 공동 소유한 구성원들의 양태 중 일부에서 드러나는 특이한 반응, 그 사이에서 발현되는 묘한 이질감을 통해 조성된 현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身體髮膚는 受之父母니 不敢毀傷이 孝之始也라”는 『효경』의 선언적 명제가 규정하는 효의 기초적 행동 수칙과, “樂而不淫, 哀而不傷” 즉, 감정을 극한으로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준칙 사이에서 설정된 전근대인의 행동 준거는 인간의 본성을 절제하고 제한하며, 한편으로는 주요한 기준을 제안한다. 그러나 사단칠정으로 구속되지 않는 인간의 다양한 지표들이 등장하기도 하며, 희로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에 귀속되지 않는 감정이 촉발한 이상 행동이 표출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효’라는 관념으로 논의를 한정하였을 때, 현대 사회가 전근대의

유산으로서 공유하는 ‘효’라는 관념의 보편적인 인식이 전근대의 그것을 오롯이 수용하여 계승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효’라는 개념이 추구하는 통상적인 사례에서 벗어나는, 논쟁적이고 특수한 사안에 대한 보편적 기대를 벗어나는 방식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와 같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미묘하게 어긋난 시선이 교차하고 충돌하며 발생시킨 조각에서 사유의 단초를 수습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잠부(潛夫) 이정구(李鼎九, 1756~1783)라는 비극적 최후를 선택한 인물과 그를 애도하는 언어들의 모음집인 『제만(祭挽)』<sup>1)</sup>을 주목하였다.

잠부 이정구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이정구가 정조대를 살았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다양한 사료에서 증언하듯, 정조의 부친에 대한 그리움과 모친에 대한 지극한 효심은 대단했다.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의 간행과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의 편찬, 효심으로 쌓아 올렸다고 평가되는 수원 화성의 규모는 정조가 지녔던 효심의 현상으로서 현재도 확인이 가능하다. 정조는 일상에서도 효를 강조하였으며, 그 정황은 『일성록』에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정조대의 기록에서 효의 본질에 대해 축적한 국왕과 신하의 고민을 계량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당대 형성된 효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 이정구의 죽음에 대한 반응 사이에 형성된 특이점도 대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이정구의 생(生)과 사(死)에서 목격되는 특수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는 유복자로 태어나 6세에 모친마저 잃고, 28세에 스스로 강에 투신하여 생을 달리할 때까지 늘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심지어 강에 투신하여 생을 마감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모친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1) 李書九, 『祭挽』 1冊, 규장각, 古4650-152.

이 지점에서 그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효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적인 사안으로 변개된다. 이 논쟁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와 애도에 참여하지 않는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간여한다. 애도하는 자들의 말은 『제만』에 모여 있으며, 애도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이정구 지우기에 나선 정황이 확인된다. 이들의 시선을 점검하여 ‘효’에 대한 본질적 인식의 기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2. 이정구의 죽음과 『일성록』을 통해 본 당대 ‘효’에 대한 인식

잠부 이정구는 강산(薑山) 이서구(李書九, 1754~1825)의 사촌 아우로, 자는 중목(仲牧)이고, 호는 잠부(潛夫), 인재(靑齋), 선서재(蓀書齋) 등이다. 그는 유복자로 태어나 6세에 모친마저 여인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의지할 곳 없는 불우한 성장환경 속에서 2살 터울의 사촌 형이었던 이서구에게 의지하며 그들은 정신적 유대를 강화했다. 이서구 역시 5세에 모친과 조부를 잃고 외가에서 성장하였으며, 17세에 부친마저 세상을 떠나는 등 두 사람은 결핍을 공통 분모로 공유했다.<sup>2)</sup>

이정구는 모친을 잃은 후, 이서구의 부친이었던 이원(李遠)의 도움을 받아 이서구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이서구가 22세 이전에 집필한 초기 산문집 『자문시하인언(自問是何人言)』에는 어린 시절 유약했던 이정구에게 보냈던 애뜻한 시선이 잘 드러나 있다. 「인재시서(靑齋詩序)」에 드러난 이서구의 시선을 따라가 본다.

2) 잠부 이정구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전수경, 「潛夫 李鼎九의 생애와 시문에 대한 일고찰-薑山 李書九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98, 동방한학회, 2024, 219~262쪽 참조.

나와 잠부(이정구)는 나이가 서로 비슷하여 어린아이 때부터 같은 글방에서 배웠고, 또 신세가 외로워 서로 위로할 수 없어 좋은 날 한가한 밤마다 번갈아 서로 시를 읊었다. 잠부는 글을 잘 지어 그의 시는 깊고 심오하며, 빼어나고 깨끗하여 넉넉하게 풍치가 있었다. 돌아보건대 나는 항상 스스로 그에게 미칠 수 없다고 여겼는데, 잠부 나이 11, 12살이었을 때를 회상해 보면 책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았다. 이때 선군자께서 당(堂)에 계셨으나, 그가 어머니를 일찍 잃고 성품 또한 유약하였기에 차마 친애의 정을 끊고 가르침을 각박하게 하지 못한 채 그가 자유로이 지내도록 들어주시었다. 그의 자적인 삶을 들어보면, 잠부는 날마다 이웃 마을의 아이를 쫓아 표주박 배와 싸리나무로 만든 말로 즐기며 희롱하며 재밌게 놀았다고 하였다. 나는 그를 몹시 아껴 한번은 밀실에 있을 때 자리에 다른 사람이 없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하였다. 손으로 그의 등을 어루만지니 등은 미끄럽고 손은 따뜻해져 척연히 감회하여 무릎에 엎드려 슬피 우니 눈물이 흘러 입으로 들어갔다.<sup>3)</sup>

이정구의 나이 11, 12살 무렵, 그는 책 읽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의 성품이 유약한 것을 알아챈던 이서구의 부친 이원은 이정구가 즐겁게 놀 수 있게 내버려두었다. 상기한바 밀실에서 이서구가 이정구의 등을 어루만지며 그의 상실을 위로하자 이정구가 무릎에 엎드려 슬피 울었다는 이 일화는 이정구에게 내재했던 상실감과 외로움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 준 존재였는지 증언해 준다. 하지만 1783년, 28살의 젊은 나이에 이정구가 급작스럽게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종결되어 버린다.

3) 李書九, 『自問是何人言』, 「韞齋詩序」(『薑山全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99~100쪽). “余與潛夫, 季紀相適, 自在童穉, 同塾而學, 且身世偁伶, 無以相慰, 每良辰燕夕, 迭吟互哦. 潛夫善屬文. 其詩深沈秀潔, 饒有風致. 顧余常自以爲不及, 追念潛夫季十一二時, 不甚喜讀書. 時先君子在堂, 以其早喪考妣, 性且柔弱, 不忍割愛刻教. 聽其自適, 潛夫於是日逐隣里兒, 匏舟租馬, 嬉戲以娛樂. 余甚憐之, 嘗在密室, 坐無他人, 因與呼名訓誨, 手拊其背, 背膩手煖, 惕然感悔, 伏膝悲嘯, 涕流入口.”

그에 앞선 1774년, 이서구가 21세에 정시 문과 병과에 급제하면서 벼슬 길에 올랐지만, 그의 과거 급제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대신(臺臣) 이보온(李普溫)의 상소로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sup>4)</sup> 이 사건으로 이서구는 1776년부터 1783년까지 8년간 영평에서 은거한다. 이 기간에 두 사람의 물리적 교류는 잠시 정체되었다. 또한 이 시기, 이정구의 모친이 죽으면서 유서로 남겼던 서신을 이정구가 입수하였고, 그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은 뒤 모친에 대한 그리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 등이 증폭되어 결국 격해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고 말았다.

이정구는 죽기 4년 전인 1779년 설달그믐 밤에, 이서구에게 자신의 외롭고 힘든 감정을 「설달그믐 밤[除夕]」이란 시를 지어 보냈다. 이정구의 시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서구가 회신한 시(「설날에 증목이 시 〈설달그믐 밤〉 시 한 수를 부쳐 보냈는데, 시에 담긴 뜻이 너무 슬퍼서 마침내 붓을 휘둘러 이 시를 써서 위로하다」<sup>5)</sup>)를 통해 당시 이정구의 심정과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서구는 이 시에서 “조물주가 너를 박대한다고 말하지 말고, 부모를 대신해 자신과 같이 아우의 마음을 알아주는 형이 있으니, 앞으로 올 날을 즐겁게 맞이하자.”고 그를 달래고 위로하며 격려하였다. 하지만 이서구와 멀리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이정구는 삶을 홀로 감내하지 못한 채, 결국 4년 뒤인 1783년 2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4) 李書九, 『楊齋集』 권4, 疏啓, 「辭持平 辨李普溫誣辱疏 癸卯」. 이서구는 1774년 정시 병과에 급제하여 1775년 3월에 성균관 전직에 제수, 4월에 예조 정랑에 제수, 12월에 이조 좌랑에 제수되었다. 1776년 정월에 사헌부 지평에 제수 되었지만 이보온(李普溫)이 강산의 급제가 사사로운 경로를 말미암았다는 상소를 올려 영평에서 은거 생활을 하게 된다.

5) 李書九, 『臺山初集』 坤(125), 「元日仲牧寄示除夕詩一首 詞意悲苦 遂走筆書此以慰」; 『楊齋集』 권3, 詩〇七言古詩, 「仲牧寄示除夕詩 自傷其孤苦 詞意甚悲 讀之澗然 遂書此以慰」. “昨日思君坐夜闌, 今朝見詩摧心肝. 莫道天翁於汝薄, 有兄如吾差不惡. 人生五十已過半, 來者詎堪長把玩. 削平幽憂付杯酒, 從此相逢開笑口.”

이정구의 죽음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차가운 강물에 투신하여 목숨을 끊은 것이었기에 주변인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전해졌다. 이한진(李漢鎭, 1732~1815)이 쓴 제문에 이정구 죽음의 내막이 기록되어 있다.

그의 말에 이르기를 내 종제(從弟) 정구는 천하가 명한 불행한 운명이다. 배속에 있을 때 부친의 상을 치르고, 태어나서는 몇 해 지나지 않아 모친을 잃었다. 정구의 모친은 죽을 때 손수 편지를 써서 그의 형의 모부인(某夫人)에게 남겨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장성하면 이것을 전해 달라.” 말했다. 정구가 장성함에 모부인이 마침내 그 편지를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너의 어머니가 임종시에 쓴 편지다.”라 하였다. 편지의 말은 모두 천륜의 지극한 정이고 슬프고 가련한 말들이었다. 정구는 편지를 꺼내 무릎을 꿇고 읽기를 마치자 마침내 방성 통곡하면서 뜻을 잃어 마음을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고 바보인 듯 미친 듯하며 침식도 잊고 오로지 눈물만 줄줄 흘렸다. 어느 날 우연히 강가로 나갔다가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아! 슬프도다!<sup>6)</sup>

이서구는 이한진에게 이정구가 죽음을 택한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였다. 이정구의 모친은 죽기 전, 아들이 장성하면 자신이 아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를 전해달라는 유언과 서신 한 통을 남겼다. 유년기 부모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이 컸던 이정구에게, 모친이 남긴 한 통의 편지는 감당할 수 없는 모친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증폭시키는 촉매로 작용했다. 또한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내며 심리적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이서구마저 부재했던 시기에 전해진 모친의 편지였기에 그의 감정은 극한으로 내달렸다.

6) 李書九, 『祭挽』. “其言曰: 吾從弟鼎九, 天下命斃也, 在腹而喪嚴君, 生不歲而失慈母. 方母氏之下世也, 手書一紙遺其兄某夫人曰: ‘吾子長成與之.’ 及鼎九成長也, 某夫人遂遺其書曰: ‘此乃汝母氏臨沒之書.’ 蓋其辭皆天倫至情, 哀慼可憐之語也. 鼎九折書跪讀畢, 遂放聲一大哭, 因忽忽心不自定, 如癡如狂, 或忘寢食, 而惟自淚泫泫. 一日偶然出江干, 因投水而沒. 嗚呼. 哀哉.”

이정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 근본적 요인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그 결정적 동인은 역설적이게도 어머니의 유서 한 통이었다. 이정구는 편지를 읽자마자 방성통곡하면서 침식도 잊고 눈물만 흘리다가 결국 강가로 나가 투신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정구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효’라고 명명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정구의 실제 행적은 ‘효자’를 초계하는 별단에 올릴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지점에서 이정구의 죽음은 상당히 논쟁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이정구의 죽음이 야기한 ‘효’에 대한 논쟁적인 사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이정구와 비슷한 행적을 보임에도 정조대 ‘효자’라고 정려(旌려) 또는 증직해야 할 대상으로 선발된 사례를 먼저 검토한다.

정조는 ‘효’를 통해 풍속을 고르게 하는 정치가 이상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돈효록서(敦孝錄序)』에서 “효는 천경(天經)이요 지의(地義)이며, 사람의 도리에 큰 근본임은 참으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임금의 백성들을 가르쳐 좋은 풍속을 구현하는 데도 효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위정자가 ‘효’를 흥기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지 않은 자가 없었던 것이다.”<sup>7)</sup>라고 하였다. 이처럼 정조는 ‘효’를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바로 잡는 일에 매진하였고, 효자와 열녀의 명단을 조사하게 하여 매년 초에 포상하였다.<sup>8)</sup>

1794년 7월 16일에 예조가 서울과 지방의 효자와 열녀의 실제 행적에 대해 회계(回啓)하였는데, 1790년부터 1793년까지 서울과 지방의 효자와 열녀로 보고된 자들은 모두 170명이었고, 정식(定式)에 따라 전 예조 판서 민중현(閔鍾顯, 1745~1798)이 참판, 참의와 함께 상의하여 등급을 나누어

7) 『弘齋全書』 권8, 序引 1, 『敦孝錄序』. “孝爲天經地義, 人道之大本, 固無論已. 王者之教民成俗, 莫急於孝. 故爲政者, 未有不以興孝爲先務焉.”

8) 『일성록』, 정조 2년 무술(1778) 2월 10일(신축); 정조 11년 정미(1787) 3월 10일(무인); 정조 18년 갑인(1794) 7월 16일(신축) 참조.



서 의정부에 보고하고 별단으로 기록해 두었다.<sup>9)</sup> 그 별단의 명단 중 효자 가운데 정려해야 할 대상, 효자 가운데 증직해야 할 대상으로 뽑고 있는 사례를 추출하였다.

먼저 효자 가운데 정려해야 할 대상에 대한 별단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용문 1]

서부의 고 사재감 서원(書員) 김익춘(金益春)은 어려서부터 아버이를 곁에서 모시며 아침저녁 식사 때마다 반드시 자신이 직접 상을 차려 무릎을 꿇고서 밥상을 올렸다. 부모가 음식을 좀 더 드시면 얼굴빛이 기쁨으로 들떴고 배불리 드리지 않으면 종일토록 슬퍼하며 울적해하였다. (중략) 어머니가 병이 들자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며 울부짖었고, 어머니가 당장이라도 돌아가실 것처럼 위독해지자 죽을 바쳤는데 항상 먼저 자기가 맞본 뒤에 올렸다. 모친상을 당하자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서는 물과 장(醬)만 마실 뿐 무 뿌리나 과 줄기라도 입에 대는 법이 없었다. 곧이어 또 부친상을 당하자 그날부터 쌀죽도 마시지 않고 죽을 것처럼 하였는데, 그가 울부짖는 소리에 인근 마을에서도 슬퍼하였다. (중략) 여러 형이 그가 제복(祭服)을 벗지 않은 것에 대해 앓고 늙는 데에 불편할 것이라고 말하니, 그가 답하기를, “부모를 잃었으니 저는 진실로 천지간의 한 죄인입니다. 어찌 감히 제 몸을 편안히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예제(禮制) 이상으로 슬퍼하여 몸이 상해서 뼈만 남은 채였으므로 기년(暮年)도 되지 않아서 상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그때 나이 20세였다.<sup>10)</sup>

9)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7월 16일(신축) 참조.

10)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7월 16일(신축). “西部故司宰監書員金益春, 自兒時, 侍親側, 朝飡夕飯, 必身自整頓跪而進之. 父母加餐, 則喜動顏色, 若不飽, 則終日慘沮. (중략) 母病籲天號哭, 若不保朝夕, 而粥飲之供, 先嘗後進. 及遭母喪, 絕而復起, 只飲水醬, 雖菁根蔥莖不曾入口. 尋又遭父喪, 自其日, 粥米不啜, 若將奄絕, 而號哭之聲, 哀動隣里. (중략) 諸兄以不脫祭服, 有妨於坐臥爲言, 則答曰: ‘已失怙恃, 真是天地間一罪人. 何敢便其身.’ 哀毀骨立, 未過暮年, 不勝喪而死, 時年二十.”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참조.

## [인용문 2]

순천(順天)의 한석(韓碩)은 16세의 어린 나이로 아버지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강변으로 나갔는데, 그 아버지가 찰졸간에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통곡하기를, “아버지가 죽는데도 구하지 못했으니 어찌 인간 세상에서 구차히 숨쉬며 살아가겠는가.”라고 하더니, 말을 마친 뒤에 자신도 물에 몸을 던져 아버지와 함께 죽었다.<sup>11)</sup>

[인용문 1]은 김익춘이 부모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몸이 상하여 20세의 나이로 요절한 사례이다. 그는 모친상을 당하자 거의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나 물과 장만 마셨고, 곧이어 부친상을 당해서도 쌀죽도 마시지 않고 죽을 것처럼 하였다. 부모를 잃은 자신을 천지간의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제복도 벗지 않고 슬퍼하다가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인용문 2]는 한석이 아버지를 따라 강에 투신하여 16세의 나이로 요절한 사례이다.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죽자,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자책으로 강물에 몸을 던져 아버지와 같이 죽었다. 두 사람의 죽음은 모두 지극한 효심에서 기인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한 사람은 스스로 영양분 섭취를 제한하고 일신의 안락함을 거부함으로써 건강을 훼손하여 죽음으로 효를 증명하였고, 또 한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 투신하여 효의 징표가 되었다. 두 사람의 사례는 스스로를 소모하여 효를 완성한 것으로, 두 건 모두 ‘효’로서 사회적 공인을 받고 정려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으로 효자 가운데 증직해야 할 대상에 대한 별단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7월 16일(신축). “順天韓碩, 乃以十六歲兒, 從其父, 捉魚出往江邊, 其父猝然溺水致死. 見其父死, 呼天痛哭, 曰: ‘父死未救, 豈可苟全喘息於人世.’ 言訖, 投水同死.”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참조.

## [인용문 3]

임천(林川)의 고 통덕랑 성일태(成一泰)는 어려서부터 하늘이 낸 효성이 있었다. (중략) 장성하여서는 그 부모가 모두 기이한 질병을 앓게 되었을 때에 침을 놓고 뜸을 뜸 때마다 자기 몸에 먼저 놓게 하여 침과 뜸으로 인한 흉터로 온 몸이 얼룩덜룩하였다. 부모의 변을 직접 맛보아 병세의 차도를 가늠하며 대신 아프게 해 달라고 하늘에 기도하였고,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입에 흘려 넣으며 피눈물을 흘려 부모를 며칠간 더 연명하게 하였다. 상을 당하여서는, 몹시 춥거나 심하게 더워도 오랫동안 여막에서 지내며 밤낮으로 슬퍼하며 부르짖으니 피눈물로 축축이 젖어 거적이 온통 문드러졌고 손과 발은 동상이 걸려 절단했다. 3년 동안 죽을 마시며 보내 원기가 모두 빠져 대상(大祥)과 담제(禫祭를) 겨우 마치고 나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다.<sup>12)</sup>

## [인용문 4]

포천(抱川)의 고 사인 이동백(李東白)은 그 아버가 일찍이 질병이 위독해져 자 밤마다 하늘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대신 아프게 해 달라고 빌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에 차도가 있었다. (중략) 모친상을 당해서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몸이 상해서 병을 얻었고,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다가 양쪽 눈이 모두 어두워졌으나, 다만 거친 음식만 먹을 뿐 장(醬)은 입에 대지 않았다. 아버가 죽자 또 죽을 마시면서 상을 마쳤다. 상복을 벗고 나서야 밥을 먹었는데 차마 삼키지 못하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어디로 돌아가 부모를 뵈옵꼬”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sup>13)</sup>

12)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7월 16일(신축). “林川故通德郎成一泰, 自幼有出天之孝. (중략) 及長, 其父母俱抱奇疾, 每當鍼灸, 先試己膚, 針痕灸瘢遍身斑斑. 嘗糞禱天, 斫指泣血以延數日之命, 及其居憂, 祁寒盛暑, 長伏苫次, 晝夜哀號, 血淚沾濕, 苦塊腐爛, 手足凍拆. 三年啜粥, 眞元漸脫, 纔畢祥禫, 竟至滅性.”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참조.

13)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7월 16일(신축). “抱川故士人李東白, 其父嘗疾篤, 夜輒祈天, 願以身代, 未幾疾差. (중략) 居母憂, 過毀成疾, 三年泣血, 兩眼皆昏, 只進疏食而不近醬. 及父歿, 又啜粥以終喪. 服闋始進飯, 不忍吞下而痛哭曰: ‘何由歸見父母乎.’ 未幾而逝.”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참조.

[인용문 3]은 성일태가 자기 몸을 임상시험의 대상으로 활용하여 효를 행한 사례이다. 부모에게 침을 놓기 전에 자신의 몸에 먼저 놓아 온몸은 흉터였고, 부모가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부모의 연명을 도왔으며, 부모상을 당해서는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려 절단하였다. 결국 상을 치르는 3년 동안 죽만 마시며 버티다가 대상과 담제를 마치고 죽었다. [인용문 4]는 이동백이 부모상을 치르면서 지나친 슬픔으로 몸을 돌보지 않고 통곡하다 죽은 사례이다. 그는 모친상을 치르면서 몸이 상해 병을 얻었고,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다가 눈이 어두워졌다. 이후 부친상을 당했을 때도 죽을 마시며 버티다가 상복을 벗고도 부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밥을 먹지 못하여 죽었다.

[인용문 3]의 경우는 부모를 위해 자신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례이다. 한 개인의 신체 또는 생명이 친족의 이익을 위한 ‘자기희생’이라는 의도로 소모될 경우, 그 행위는 이타적이며 전통적 가치관으로서의 ‘효’, ‘열’, ‘의’에 부합하게 됨을 증명하는 결과가 된다. 예컨대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한 어머니들, 형제를 구하기 위해 화염에 휩싸여 죽어가는 영웅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sup>14)</sup>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아야 함’이라는 효의 기본 조항은 부모의 안위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는 무시될 수 있는 조항이자 신체에 남긴 상흔은 오히려 실천적 효의 주요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상기 [인용문 1]~[인용문 4]는 정려와 별단을 통해 효의 실천적 주체가 효의 수신 대상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효’로 인준됨을 사회적으로 공인해 준 사례를 보여준다. 한편, 여성의 자살이 ‘열(烈)’

14) 최근에는 소위 ‘이성적인 자살’이라 불리는 것까지 있다. 이성적인 자살이란 나이 많은 환자나 악성 질환의 말기 환자가 가족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죽음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해서 죽는 것을 말한다. (나탈리 앤지어 저, 햇살과나무꾼 역, 『살아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 해나무, 2010, 331~333쪽 참조.)

로 인정되는 시선도 존재한다. 열녀 가운데 정려해야 할 대상에 대한 별단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용문 5]

의성(義城)의 고 업유(業儒) 김종행(金宗行)의 처 이씨는 남편이 얼굴에 종기가 나서 고생하자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거의 완치시켰다. 남은 독이 다시 병을 일으키자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기도하여 자신이 대신 아프게 해 달라고 빌었으나 끝내 살리지 못하였다. (중략) “지아비가 죽은 날에 아내도 따라 죽어서 지하에 함께 내려가는 것이 인간 세상에 당연한 것이다.” 하더니, 그 남편의 대상일(大祥日)에 몰래 남편의 무덤을 성묘하고는 앞에 있는 연못에 몸을 던져 죽었다.<sup>15)</sup>

[인용문 6]

양근(楊根)의 고 사인 박장국(朴長國)의 처 심씨(沈氏)는 20세에 박씨에게 시집왔다. 그 남편이 근친(親親)을 위해 남쪽 지방에 가다가 불행히 물에 빠져 죽었다. 심씨는 성복(成服) 전에 독약을 한 번 마셨고 두 번 목을 뺐으며, 닷새간 음식을 끊었다. 남편이 땅에 묻히기 십수 일 전에 몰래 나와 집 뒤에 있는 작은 우물에 기어 들어가 죽었다. 죽은 뒤에 언문으로 쓴 편지 하나를 찾아냈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가장이 물에 빠져서 죽었으니 나도 우물에 기어 들어가 죽을 것이다. 오직 바라는 것은 같은 날 같은 무덤에 묻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sup>16)</sup>

[인용문 7]

태천(泰川) 고 군인 김계금(金啓金)의 처 최 조이(崔召史)는 남편이 장에

15)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7월 16일(신축). “義城故業儒金宗行妻李姓, 夫患面腫, 吮之幾完. 餘毒復肆, 則沐浴禱天, 願以身代, 竟至不救. (중략) 嘗語其姊妹曰: ‘婦死於夫死之日, 從遊地下, 當如人世間.’ 及其祥日, 潛省夫墳, 仍投前澤而死.”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참조.

16)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7월 16일(신축). “楊根故士人朴長國妻沈氏, 年二十歸於朴. 其夫爲親親往南邑, 不幸滄水而死. 沈氏於成服前, 飲毒者一係, 頸者再, 不食者五日. 其夫入地前十數日, 潛出, 趨伏家後小井而死. 死後搜出諺書曰: ‘家夫溺水而死, 吾亦伏井而死. 惟願同日同穴而葬云.’”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참조.

갔다가 익사하자 물길을 따라 위아래로 다니며 직접 시신을 찾아 건졌다. 장사 날에 자결하여 남편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곁에 있던 사람이 만류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에 음식을 폐하고 밤낮으로 애통해하더니, 하루는 부모와 이웃과 친족들에게 말하기를, “지아버가 죽었는데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제게 자식 하나가 있으니 잘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방에 들어가 새 옷으로 갈아입고서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sup>17)</sup>

[인용문 8]

남평(南平) 고 하리 강봉학(姜鵬學)의 처 김 조이(金召史)는 남편의 병이 매우 위독해지자 그 변을 직접 맛보아 병세의 차도를 기능하였고, 자기가 대신 아프게 해 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중략) 그 아버지가 와서 타이르기를, “너의 지아버를 장사 지낸 뒤에 너를 데리고 집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니, 딸은 이미 강씨 집안사람이 되었으니 함께 죽어 함께 돌아가기로 뜻을 이미 정했다고 답하였다. 몰래 머리를 잘라 술과 고기를 사서 그 아버지에게 올리고 울며 이별하면서 말하기를, “부모님께는 아들이 넷이나 되니 딸 하나 죽는 것은 다시 생각하지 마소서.” 하고 이날 밤에 동산의 나무에 목을 댔다. 집안사람들이 그 줄을 풀어서 구하니 다음 날 황혼녘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약을 먹고 죽었다.<sup>18)</sup>

[인용문 5]는 김종행의 처 이씨가 지아버가 죽은 날에 ‘아내도 한낱한시에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남편을 따라 연못에 몸을 던져 죽은 사례이다. 처 이씨는 남편이 얼굴에 종기가 나자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 냈게 하였고, 남편의 시신에 붙은 이가 떨어지지 않자 자신의 몸에 이를

17)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7월 16일(신축). “泰川軍人金啓食妻崔召史, 夫往場市滄死, 崔召史沿水上下, 躬自拯得. 臨葬, 欲自決下從, 爲傍人所挽不得. 仍廢食飲, 晝夜哀痛, 一日辭其父母及族隣曰: ‘夫既死矣, 我生何爲. 我有一子, 善爲保養.’ 入于房中, 更着新衣, 飲毒而死.”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참조

18) 『일성록』, 정조 18년 갑인(1794) 7월 16일(신축). “南平放下吏姜鵬學妻金召史, 夫病甚篤, 嘗糞以驗, 祝天願代. (중략) 其父來諭曰: ‘汝夫葬後, 率汝還家.’ 答以女既爲姜家之人, 一死同歸志已決矣. 潛斷其髮, 賣備酒肴, 以供其父, 泣訣曰: ‘父母則四男子存焉, 一女之死, 勿復爲念.’ 是夜結項於園樹, 家人救解. 翌日黃昏, 入于私室, 服藥而死.”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참조

받는 등 남편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였다. [인용문 6]은 박장국의 처 심씨가 남편이 남쪽 지방을 가다가 물에 빠져 죽자, 우물에 빠져 죽은 사례이다. 처음에는 독약을 마셨고, 두 번 목을 댔으며, 닷새간 음식도 끊었지만 죽지 못해 결국 우물에 기어들어가 죽었다. [인용문 7]은 김계금의 처 최조이(崔召史)가 남편이 장에 갔다가 익사하자 독약을 마시고 남편을 따라 죽은 사례이다. 이 경우는 장삿날에 자결하여 죽으려고 하였지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만류하여 죽지 못했고, 이후 그녀는 부모와 친족들에게 “자식 하나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인용문 8]은 강봉학의 처 김조이(金召史)가 남편이 죽자,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목을 댔다가 결국 약을 먹고 죽은 사례이다. 친정아버지가 딸의 자결을 말렸지만, “딸 하나 죽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는 목을 매서 자결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집안사람들이 풀어 주어 죽지 못했고, 결국 다음 날 약을 먹고 죽었다.

[인용문 5]와 [인용문 6]은 남편이 죽자, 처가 남편을 따라 연못과 우물에 몸을 던져 죽은 경우이다. 그런데, [인용문 7]과 [인용문 8]의 경우는 남편과 부인 두 사람의 관계만 얽혀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죽음을 저지하려는 친정 부모의 부탁, 집안사람들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죽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유지하며, 끝내 감시의 눈을 피해 남편을 따라 자살을 결행한다. 이 경우 남편은 자식, 친정 부모보다도 우위에 있는 존재이고, 자살까지도 용납되는 ‘열’의 윤리가 적용된다. 즉, ‘열’을 판정하는 데는 ‘효’가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셈이다.

### 3. 『제만(祭挽)』에 모인 위로의 언어들

『제만』 1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필사본 서적이다. 규장각 서지사항에는 편자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만』은 이서구가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만』은 이정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과 만사를 모아 놓은 책으로 앞뒤 표지를 제외하고 19장의 분량이다. 이서구가 직접 쓴 제문이 수록되어 있고, 백온(伯溫), 족종숙(族從叔) 이언광(李彦光), 족종숙(族從叔) 이윤원(李允元), 척숙(戚叔) 이한진(李漢鎭), 우인(友人) 서선수(徐善修)와 이영재(李永載), 승지(承旨) 송익효(宋翼孝)의 제문과 만사가 이어진다. 제일 마지막에는 개장할 때의 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글은 이서구의 문집인 『척재집(惕齋集)』에도 수록되어 있다.<sup>19)</sup> 『제만』에 수록된 제문에는 개장하는 날짜와 장소에 대한 정보가 서술되어 있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sup>20)</sup> 이서구는 1783년 당시에 지었던 제문, 친인척과 이정구의 벗들이 지은 제문과 만사를 보관하고 있다가 40년이 지난 시점에 양주에 길지를 정해 개장(改葬)하고, 다시 제문을 지은 후 『제만』 1책으로 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정구는 1783년 11월 16일에 생을 마감하였고, 이서구의 제문은 1783년 12월 14일부터 시작된다. 1783년 12월 14일, 16일, 17일, 24일, 26일, 27일, 1784년 1월 15일, 1월 17일, 3월 16일, 3월 17일, 3월 22일, 4월 11일, 4월 16일, 4월 17일, 8월 27일, 9월 1일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이정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제문을 지었다. 제문에는 그 해당하는 날짜 한 달 전 이정구와의 만남이나 일화에 대해 기록해 두었다.<sup>21)</sup>

○ 12월 14일 석전(夕奠). 지난 달 14일 저녁에 그대가 와서 나를 보고 돌아

19) 李書九, 『惕齋集』 권9, 祭文, 「從弟仲牧改葬祭文」.

20) 李書九, 『祭挽』. “維癸未二月二十九日己巳. 從弟學生, 從弟婦孺人礪山宋氏之柩, 自永平, 將遷于楊山之原. 從兄書九 茲具薄奠, 哭告于柩前曰: (하략).”

21) 李書九, 『祭挽』. “十二月十四日夕奠. 去月十四日夕, 君來見我回後, 不復見君之來矣.”; “十二月十六日旦奠. 去月十六日曉, 見君於德柔家, 遂爲畢生之永訣.”; “十二月十七日夕奠. 前月今日, 卽吾弟辭家之日也.”; “甲辰上元日夕, 別設一奠. 每年上元之事, 惟吾與弟知之, 痛哉痛哉. 此樂何可得也.”



갔는데, 다시는 그대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네.

○ 12월 16일 단전(旦奠). 지난 달 16일 새벽에 그대를 덕유가(德柔家)에서 보았는데, 마침내 평생의 영결을 하였네.

○ 12월 17일 석전(夕奠). 전달 오늘은 즉 내 아우가 집에서 이별하던 날이었지.

○ 갑진년(1784) 상원일(上元日, 음력 정월 15일) 저녁에 따로 전(奠)을 올리다. 매년 상원일에 있었던 일들은 오직 나와 아우만이 아니, 아아 슬프다! 이 즐거움을 어찌 얻을 수 있으랴.

이서구의 위로와 애도는 사적 기억으로부터 추억을 인출하여 슬픔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현재와 과거를 교차적으로 기술하여, 한 달 전에는 서로 만나 즐겁게 지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아우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서술하여 아우에 대한 그리움을 증폭시킨다. 또한, 이정구의 죽음으로부터 40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제문에서도 여전히 이정구를 그리워하는 이서구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sup>22)</sup>

嗟君之歿,	아! 네가 죽은 지
餘四十載.	사십여 년이 지났구나.
日月雖久,	세월이 비록 오래 흘렀으나
我思昧昧.	나의 그리운 마음은 깊기만 하구나.
君有美質,	너는 아름다운 자질을 지녀
秉志脩能.	확고한 뜻과 탁월한 재능이 있었으니
發爲文辭,	발휘하여 문사를 지은 것이
瓊琚玉佩.	경거와 같고 옥패와 같았네.
我媿爲兄,	나는 부끄럽게도 형이 되어서
式篤情愛.	우애의 정을 돈독히 하였는데

22) 李書九, 『楊齋集』 권9, 祭文, 「從弟仲牧改葬祭文」.

云胡一朝,	어찌 하루아침에
中塗相背.	중도에 목숨을 저버리고 말았느냐.
天不可問,	하늘에다 따질 수 없으니
惘結肝肺.	슬픔이 가슴 속에 맺혀 있구나.
卜吉于楊,	양주에 길지를 정하여
井椁新裁.	관곽을 새로 짜 맞추었네.
旣遷先兆,	이미 선영에다 옮겼고
又從賢配.	어진 아내와 합장까지 하였으니
庶慰孝思,	효자의 마음을 위로하여
而永無悔.	영원토록 후회가 없으리라. <sup>23)</sup>
(하략)	(하략)

이서구는 이정구가 죽고 40년이 지난 1823년 3월 29일에 개장한 후 제문을 다시 작성하였고, 이 제문을 『척재집』에도 수록하였다. 이서구와 이정구 두 사람은 유년기에 발생한 가족 구성원의 연이은 상실로 인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심적 고통을 받았다. 부모를 여윈 상실감을 공통 분모로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존재였다. 이서구는 이정구에게 형으로 우애의 정을 돈독히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런 이정구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이다. 「우군묘지명(禹君墓誌銘)」에 이정구의 자살로 인한 이서구의 참담했던 심정을 서술해 두었다. “지난 계묘년(1783) 겨울에 내가 종형제의 상을 당하여 양문(梁文)의 장사(莊舍)에 가서 머물렀는데, 슬프고 참담하여 마치 살고 싶지 않은 것처럼 실의하였다. 군이 날마다 와서 곁을 지켜주면서 나의 곡소리가 몹시 슬픔을 들으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진정하지 못하였다. (중략) ‘내 나이 비로소 서른인데, 나를 아끼는 친척과 봉우들이 대부분 먼저 세상을 떠나가 버렸으

23) 李書九, 『祭挽』; 李書九, 『楊齋集』 권9, 祭文, 「從弟仲牧改葬祭文」.

니, 내가 참으로 불행함을 스스로 괴이하게 생각한다.”라고 적었다.<sup>24)</sup> 이서구는 중도에 목숨을 저버린 것에 대해 하늘에 따질 수도 없고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일이지만, 그 행동 자체는 ‘효’를 행한 것이라 평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서구는 이정구가 죽음에 이른 전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고, 이정구가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변명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서구에게 이정구 죽음에 대한 저간의 사정을 들은 이한진은 이정구의 자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이한진은 이정구, 이서구와 함께 대은암에서 노닐면서 시를 지었던 정황이 포착된다.<sup>25)</sup>

지금 정구의 죽음은 비록 성인의 경계하는 바를 범하였지만, 그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지극한 효라고 할 수 있다. 경(經)에 이르기를 “효라는 것은 하늘의 경(經)이요 땅의 의(義)이다.”라고 하였으니, 사람이 천지의 경을 얻었으면 이것만으로도 지극한 것이다. 전(傳)에 또 이르기를,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의 인(仁)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자하(子夏)가 편벽되었음에도 오히려 성인의 무리가 된 것으로부터, 정구의 죽음이 반드시 군자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은 아니며, 세상의 완악하고 모질게 아버지를 버린 자와 비교하면, 그 어둠과 어리석음이 서로 매우 다를 뿐 아니라 민멸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니 그릇된 것이겠는가. 옛날 굴원이 상강(湘江)에 몸을 내던져 죽었을 때는 군자들이 특별히 그의 충(忠)을 허여하였음에도, 정구가 세상을 떠난 사실이 효문의 굴원[靈均]으로 인식된다고 해도 아무 상관 없으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24) 李書九, 『楊齋集』 권9, 行狀○墓表○墓碣○墓誌, 「禹君墓誌銘」.

25) 李書九, 『楊齋集』 권3, 詩○五言律詩, 「同仲牧陪嘯齋金丈及李京山漢鎮 遊大隱巖」. “林壑誰爲主, 題詩憶翠翁. 名隨流水盡, 事與碧山空. 花絮春光晚, 琴樽暇日同. 相看松石意, 抱膝磻磳中.” 제목에서 ‘효재 김장(嘯齋金丈)’은 金用謙(김용겸, 1702~1789)으로, 자는 제대(濟大), 호는 효효재(嘯嘯齋)이다. 김창집(金昌緝)의 아들로 연암그룹과 친밀하게 지낸 인물이다. 이서구는 14살 때 김용겸의 주례로 관례를 치렀다. 또한 ‘이경산(李京山)’은 이한진(李漢鎭, 1732~1815)으로 자는 중운(仲雲), 호는 경산(京山)이다.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등의 연암그룹과 교류하였고, 물음에 밝아 만년에 『정구영언(靑丘永言)』을 편찬하였다.

매우 슬프도다.<sup>26)</sup>

이한진은 이정구의 자살이 성인이 경계하는 바를 범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그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지극한 효[至孝]에서 비롯한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효경』과 『논어』를 전고로 활용하였다. 『효경』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효’는 하늘의 항상됨이고, 땅의 의로움이며, 백성이 변함없이 실천해야 할 행실이다[子曰: “夫孝,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라는 구절을 통해 이정구의 죽음은 천지간의 당연한 이치이자 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논어』 「이인(里仁)」편에 “사람의 과실은 각기 그 부류대로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의 과실을 보면 인을 알 수 있다[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斯知仁矣.]”라는 구절을 통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과실을 저지르지만, 부득이하게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과실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하였다.

또한, 이한진은 이정구 투신의 행위를 굴원에 빗대어 행위의 정당성을 변명해 주었다. 굴원 역시 떡라수(汨羅水)에 투신하여 죽었지만, 이 행위를 충절로 하여하듯이, 이정구의 투신 역시 어버이에 대한 지극한 효로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 매우 슬프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다음 예문은 백온(伯溫)의 만사로, 백온이라는 인물의 정보는 자세히 확인할 수 없다. 그가 이정구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고, 같이 공부하며 술을 마셨던 벗과 같은 존재였다는 정도만을 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26) 李書九, 『祭挽』. “今鼎九之死, 雖犯聖人之戒, 而蹟其行, 則至孝也. 經曰: ‘夫孝, 天之經, 地之義, 人而得天地之經, 斯已至矣. 傳又曰, 觀過斯知仁, 自夫子夏之偏, 而猶爲聖人之徒, 則鼎九之死, 未必見棄於君子, 而視諸世之頑忍遺親者, 其賢愚 不啻相懸, 有不可泯者, 非耶? 昔屈原投死湘江, 而君子特許其忠, 鼎九之沒, 不害爲孝門之靈均, 而人無有知者, 吾甚哀之.”

六歲哭母遺腹孤,  
 人間百窮萃微軀。  
 屈子過忠君過孝,  
 六歲哭母遺腹孤,  
 人間百窮萃微軀。  
 屈子過忠君過孝,  
 吁嗟仲牧有知無。  
 濁世人皆競,  
 清標子獨存。  
 絕才追古韻,  
 至潔厭塵喧。  
 樂有披帷室,  
 靜開嘉樹軒。  
 那知三十未,  
 空瘞白雲原。  
 少吾差數歲,  
 同硯又同罇。  
 日暮寒江淚,  
 生前未了言。

6세에 어미를 곡하고 유복자에 고아가 되어,  
 인간세상 모든 고난, 비루한 몸뚱이에 모조리 붙었네.  
 굴원은 충이 지나쳤고, 그대는 효가 지나쳤음을.  
 6세에 어미를 곡하고 유복자에 고아가 되어,  
 인간세상 모든 고난, 비루한 몸뚱이에 모조리 붙었네.  
 굴원은 충이 지나쳤고, 그대는 효가 지나쳤음을.  
 아! 중목은 아는가 모르는가.  
 혼탁한 세상 사람들 모두 다투지만,  
 맑은 의표(儀表) 그대 홀로 지켰네.  
 빼어난 재주, 옛 운(韻)을 쫓고,  
 지극한 고결함, 세속의 시끄러움 싫어하였네.  
 즐기는 것은 방에 휘장을 걸고,  
 고요하게 가수현(嘉樹軒) 여는 데 있었네.  
 어떻게 알았으랴 서른이 되기 전,  
 허무하게 흰 구름[白雲, 부모를 그리워하는 정] 언덕에  
 묻힐 줄.  
 나보다 몇 살 아래라,  
 함께 먹 같고 또 같이 술도 마셨네.  
 저물녘 차가운 강에 눈물 흘리며,  
 생전에 하지 못한 말 전하네.<sup>27)</sup>

백은의 만사는 이정구의 죽음에 대해 “굴원은 충이 지나쳤고, 이정구는 효가 지나쳤다.”고 언급하며 이정구의 죽음에 대해 ‘효’를 지나치게 행한 것으로 평하였다. 혼탁한 세상에 홀로 맑은 의표를 지키다 죽은 굴원에 빗대어, 이정구 역시 지극히 고결하고 세속의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인물로 묘사하였다. 자신보다 몇 살 아래인 동생이 서른도 채 되기 전에 부모에

27) 李書九, 『祭挽』, 『伯溫哭挽』.

대한 그리움으로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실히 드러난다.

다음으로 의령현감을 지낸 족종조(族從祖) 이지성(李之晟)의 제문을 제시한다. 언광(彦光)은 그의 자이다.

揚顯事雜必,	부모를 드러내는 일 잡되나 필하기에,
岷岵情轉縈.	기호(岷岵) <sup>28)</sup> 의 정 얽히고 설키네.
先人見地下,	선인을 지하에서 본다면,
昔賢垂訓明.	옛 현인의 가르침 밝게 빛내리.
此語諒不妄,	이 말은 진실로 망령된 것 아니니,
跬步視九京.	종종대며 구천을 돌아보리.
減性雖有戒,	성(性)을 멀히는 것 비록 경계함 있으나,
何用苦拘寧.	무엇하러 괴로이 구애될 것인가?
泉戶應無隔,	황천(黃泉)의 문 응당 막히지 않았으니,
風樹悅有聲.	나무에 이는 바람소리 남아 있음에랴.
庶識爺孃面,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七尺鴻毛輕.	칠척(七尺)의 몸 홍모(鴻毛)보다 가벼우리.
一日融洩顯,	하루라도 융예(融洩) <sup>29)</sup> 가 드러나는 것은,
三春寸草情.	어머니의 사랑[三春], 자식 마음[寸草]의 정이라네.
燭理如見火,	사리를 비춤이 불을 보는 것 같으니,
何勞問靈平.	어찌 수고로이 영혼이 평안한가 묻겠는가?
思之已爛熟,	생각은 이미 무르익었으니,
此舉非冥行.	이 행동 어둠 속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리.
一般三閭意,	삼려대부의 뜻과 매일반이니,
忠孝但異名.	충과 효는 다만 이름이 다를 뿐. <sup>30)</sup>
(하략)	(하략)

28) 기호(岷岵): 부모를 말한다. 『시경』 「척호(陟岵)」에 효자가 행역을 나가 그 부모를 잊지 못하여 산에 올라가 그 부모가 계신 곳을 바라보며, 제1장에서 “저 초목이 없는 산에 올라 아버지를 바라보네[陟彼岵兮, 瞻望父兮.]”라고 하였고, 제2장에 “저 초목이 있는 산에 올라 어머니를 바라보네[陟彼岵兮, 瞻望母兮.]”라고 하였다.

이지성의 제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성(性)을 멸하는 것 비록 경계함 있으나, 무엇 하러 괴로이 구애될 것인가?[滅性雖有戒, 何用苦拘儻.]”이다. 여기서 말한 성을 멸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이지성은 이정구의 죽음이 부모의 얼굴을 보고 만나기 위한 심리상태에서 출발한 행동이었을 것이라 가정하며, 만약 죽어서라도 부모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일곱 자 몸인 자신의 육체 따위는 기러기 털처럼 가볍게 여겨 던져버릴 수 있고, 죽음을 통해 부모를 만났다면 그의 영혼은 평안을 찾을 것이라는 그의 죽음에 대한 변명이다. 이정구의 죽음은 수많은 생각이 무르익어 내린 결정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굴원의 뜻과 같은 것이니, ‘충’과 ‘효’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이치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정구 죽음에 ‘효’의 가치를 내세워 그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다음으로 친구인 서선수(徐善修)의 제문이다. 이정구의 조부인 이연소(李彦燾)는 아들 3명과 딸 1명을 두었고, 손자 6명과 손녀 3명이 있다. 그중 손자는 서구(書九), 정구(鼎九), 용구(用九), 경구(經九), 초구(初九), 소구(韶九)이고, 손녀는 3명이니, 김만순(金晩淳), 김이윤(金履尹), 서선수에게 시집갔다.<sup>31)</sup>

29) 융예(融洩): ‘융융예예(融融洩洩)’의 준말로, 화락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함을 이른다. 『춘추좌씨전』 은공(隱公) 원년에, 정(鄭)나라 장공(莊公)이 아우 공숙단(共叔段)의 반란을 평정한 뒤에 그와 공모한 어머니 강씨(姜氏)를 성영(城穎)에 유폐하고 다시 안 만나겠다고 했다가, 영고숙(穎考叔)의 충언을 듣고 땅굴을 통해 들어가서 강씨를 만났는데, 그때에 장공이 노래하기를 “대수 안에 그 즐거움이 화락하네[大隧之中, 其樂也融融.]”라고 하였고, 그 어머니가 나와서 노래하기를 “대수 밖에는 그 즐거움이 퍼지도다[大隧之外, 其樂也洩洩.]”라고 하였다.

30) 李書九, 『祭挽』, 「族從祖宜寧公諱彦先」.

31) 李書九, 『楊齋集』 권9, 行狀○墓表○墓碣○墓誌, 「皇祖考通訓大夫繕工監副正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五衛都揚府都揚管世子貳師傅君行狀」. “子男三人, 長卽先考司諫院正言諱遠, 次日逸日遠, 季居趙淑人喪, 以毀卒. 女一人適徐有仁, 亦早卒. 孫男六人, 書九·鼎九·用九·經九·初九·韶九, 女三人適金晩淳·金履尹·徐善修.”

君子人歟君子人,  
噫斯人也有斯仁。  
蓼莪今古誰無感,

至性於君始見眞。  
楚湘哀切屈閭衷,  
眞會千秋有晦翁。  
忠孝由來無二致,  
更誰衰季尙論公。  
顏之壽與鄧之兒,  
人世空傳未了疑。  
天理茫茫從古爾,  
如今奚獨爲君悲。  
詩禮名門若有爲,  
生何奇也死何奇。

군자다운 사람인가? 군자다운 사람이고 말고  
야! 이 사람, 이 인(仁)을 가지고 있네.

부모를 추모함[蓼莪] 예나 지금이나 누가 느끼지  
못하리오

지성(至性)이 그대에게서 비로소 참모습 보였네.

초나라 상수(湘水)의 애절함과 굴원의 衷心

마침 천추에 주희를 만난 듯.

충과 효의 유래는 다름이 없으니

다시 누가 쇠퇴한 말세에 여전히 공평함을 논하겠는가.

안연의 목숨과 등유(鄧攸)의 아이는

인간 세상에 헛되이 전하여 의심 그치지 않네.

천리가 아득함은 고대부터였으니

지금 어찌 홀로 그대 위해 슬퍼하리.

시례(詩禮)의 명문이라 큰일 할 듯하였지만

삶은 어찌 그리 기구하며, 죽음은 어찌 그리 기구한가?32)

서선수는 『논어』 「태백(泰伯)」 편의 “육 척의 어린 임금을 부탁할 만하  
며, 백 리의 명을 맡길 만하며, 죽고 사는 사이에 이르러서도 그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인가? 군자다운 사람이니라[曾子曰: “可  
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  
也.”].”라는 전고를 활용하여 이정구를 효와 절개를 지킨 인물로 평하였다.  
또한 이정구를 통해 굴원이 ‘충’을 지키려고 했던 애절함과 충심(衷心)을  
보았다고 언급하면서 굴원이 지킨 ‘충’과 이정구가 지킨 ‘효’를 동일선상에  
두었고, 아성으로 일컬어졌지만 32세에 요절한 안연에 비견하여 그의 기구  
한 죽음을 안타까워하였다.

다음은 친구인 이영재(李永載)의 제문으로, 계묘(癸卯, 1783)년 12월 초

32) 李書九, 『祭挽』, 「友人徐善修題」.



6일에 작성하였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상을 치러 부모의 얼굴도 보지 못함을 항상 스스로 괴로워하며, 인간에게는 모두 부모가 있으나 오직 나만 홀로 없다고 여겨, 웅크려들며 스스로 견디지 못하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병하여, 문을 나선 지 열흘 만에 집안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돌아왔다 하니, 듣는 사람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과실을 보면 인(仁)을 알 수 있다.” 하였으니, 중목(이정구)과 같은 경우, 내가 효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겠는가?<sup>33)</sup>

이영재의 제문을 통해 이정구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부재로 괴로워하였고, 유독 자신만 부모가 없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했음을 알 수 있다. 이영재도 『논어』 「이인」편에 “사람의 과실은 각기 그 부류대로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의 과실을 보면 인을 알 수 있다[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斯知仁矣].”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이정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 그 이면의 사정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그 사정을 안다면 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이서구는 이정구 죽음의 전말을 숨기지 않고, 이정구가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하면서, 이정구를 위한 제문과 만사를 부탁하였다. 이서구는 이정구가 1783년 11월 16일에 생을 마감한 후, 12월 14일부터 그와의 일화를 추억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사적인 기억으로부터 슬픔을 극대화하면서도 그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33) 李書九, 『祭挽』, 「癸卯十二月初六日 友人李永載長卿著」. “生而卽憫凶, 未及見父母顏, 常自疚之, 以爲人皆有父母, 繫我獨無, 跼若不可自容者. 旣而病發, 出門而去, 粵十日, 家人始以屍得歸, 聞者不勝悲之. 孔子曰: ‘觀過斯知仁.’ 若仲牧者, 吾謂孝者非耶?”

이하진과 서선수는 『논어』를 전고로 활용하여 이정구의 죽음을 지극한 효에서 비롯한 행동으로 평하면서, 굴원의 죽음을 충절로 하여하듯이 이정구의 죽음 역시 효로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백운(미상)은 이정구의 죽음에 대해 효가 지나쳤다고 평가하였지만, 이 역시도 효의 실천이라는 가치에 동조한 것이다. 의표를 지키다 죽은 굴원에 빗대어, 지극히 고결한 성품을 가진 이정구를 회상하였다. 죽종조인 이지성은 충과 효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면 죽음에 구애될 것이 없다는 가치를 부각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영재는 이정구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언급하면서 이정구의 죽음은 그 이면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개하였고, 이정구의 어린 시절과 성장환경을 안다면, 그의 죽음을 ‘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평하였다.

이처럼 『제만』에 모여 있는 글들은 모두 이정구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자들의 말이다. 애도를 받는 대상인 이정구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작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상당히 가깝게 설정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이정구의 죽음을 ‘효’라는 가치로 사회적 이념 안에서 정의될 수 있도록 그의 죽음을 평하였다.

#### 4. 백담시사의 이정구 흔적 지우기

이정구의 죽음은 병사가 아니라 차가운 강물에 투신하여 목숨을 끊은 것이었기에 이서구뿐만 아니라 10대를 함께 보냈던 백담시사의 일원, 특히 이덕무, 박지원, 유득공 등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덕무는 이정구 생전에 그의 시에 대해 “시의 월령(月令)”이라고 매우 칭찬하였고,<sup>34)</sup> 홍대용은 중국 문사 등사민(鄧師閔)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잠부

(이정구)는 18세지만 이미 우아하고 박식하니 또한 기재(奇才)이다.”라고 소개하며 이정구의 천부적 재능과 시재(詩才)를 인정하였다.<sup>35)</sup>

그런데, 이들의 문집에는 이정구가 죽고 나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제문의 글이 한편도 실려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서구는 이정구가 죽고 난 뒤 쓴 제문, 친인척과 이정구의 벗[友人]들이 쓴 제문과 만사를 모아 『제만』 1책으로 엮었다. 이 책에도 백담시사 일원과 관계된 인물의 제문은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서구의 문집 등을 통해 이정구 역시 백담시사 일원과 자주 어울려 교류한 흔적이 확인되는데, 왜 백담시사 일원들은 그 누구도 이정구를 위한 위로의 글을 남기지 않았던 것일까? 이들이 이정구와 교류한 흔적까지 지워나갔던 것으로 짐작할 만한 정황이 포착된다.

먼저, 이정구와 유득공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시로는 『영재집(泠齋集)』에 수록된 「적간관연가를 지어 잠부에게 주다[赤間關硯歌贈潛夫]」이다.

34)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33, 『清脾錄』 2, 「四月天氣」. “余賞愛四月暄和濃綠, 天氣駘宕, 而未得相當之句, 李仲牧, 薑山之從弟也, 有詩曰: ‘綠陰渾舍得, 黃鳥四隣飛.’ 斯豈非四月天氣乎. 人莫不月月作詩, 讀其詩, 端韻指爲某月者甚難. 惟仲牧之詩, 謂之詩之月令可也.”

35) 『搢紳赤牘』, 「與鄧汶軒[師閔. 字騫如. 山西人.]書」其五 참조. “澹園詩序及八詠, 托諸友共賦, 并以附去. 諸友年有長少, 業有精疎, 摠是海外才士. 如李洛瑞(書九)年廿一, 李潛夫(鼎九)年十八, 已藻雅博識, 亦奇才也. 但諸子以八景命題, 多未詳, 所賦不稱意爲恨. 蟬橘, 李炯菴(德懋)堂號, 朴燕巖(趾源)所作記文, 願得澹園墨跡, 扁揭寓菴. 李洛瑞兄弟六扁額, 燕巖烟湘閣額, 皆願得澹園書. 如任公或他名士亦可. 弟八詠詩章篆體, 友人代筆. 澹園詩, 炯菴序, 朴在先(齊家)筆, 燕巖序, 李洛瑞筆.”; 최식, 「韓中 知識人의 詩文 交流」, 『대동한문학』 51, 대동한문학회, 2017, 115~141쪽 참조; 潛夫 李鼎九의 시문에 대한 연구는 전수경, 「潛夫 李鼎九의 생애와 시문에 대한 일고찰-薑山 李書九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98, 동방한문학회, 2024, 219~262쪽 참조.

(중략)

緣何落在故人手  
 我見欲有之  
 故人顏色難.  
 團團長置几案間.  
 米顛藏衣袖  
 東坡唾硯顏.  
 古人如此何況我  
 攫取而走步蹣跚.  
 此硯色旣赤  
 所以得之如是艱  
 無怪其名赤間關.

무슨 인연으로 내 친구의 수중에 들어와  
 내가 보고 그걸 갖고 싶어 하자  
 동그라니 껌석 서안 사이에 오래 놓여있는가.  
 친구는 몹시 곤란한 낯빛 보이네.  
 미불은 옷소매에 벼루 감춘 적 있고  
 동파는 벼루 바닥에 침 뱉기도 했었지.  
 옛사람도 이랬거늘 나야 하물며 어찌리  
 획 낚아채 뛰어가다 걸음 비틀거렸네.  
 이 벼루 색깔 이미 붉은데  
 이를 얻기도 이처럼 어렵기에  
 적간관이란 그 이름 괴이할 것 없도다.<sup>36)</sup>

유득공이 이정구가 가지고 있었던 일본 적간관(赤間關) 지역의 벼루를 보고 갖고 싶어 하자, 이정구는 몹시 곤란한 낯빛을 보인다. 결국 유득공은 이정구 몰래 벼루를 훔쳐간 뒤, 벼루에 특별한 취향이 있었고, 벼루를 훔쳤던 미불(米芾)과 동파(東坡)의 전고<sup>37)</sup>를 활용하여 자신이 벼루를 훔쳐 간

36) 柳得恭, 『冷齋集』 권1, 古今體詩, 「赤間關硯歌贈潛夫」; 유득공 저,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 『영재 유득공의 영재집』 1, 학자원, 2019 번역 참조.

37) 미불(米芾)과 동파(東坡)의 전고: 북송(北宋)의 화가이자 서예가 미불은 휘종(徽宗) 때 서학박사(書學博士)가 되었다. 휘종이 미불을 불러 어담(御榻)에 놓인 단계연(端溪硯)으로 글씨를 쓰게 하였다. 글씨를 쓴 뒤 미불은 휘종에게 단계연을 하사해 줄 것을 청하였고, 허락을 받아 단계연을 품고 달려가니 남아있던 먹물이 도포의 소매를 적셨다는 고사가 『춘저기문(春渚記聞)』 권7, 「미원장조우(米元章遭遇)」에 보인다. 송나라 주동(周穉)은 미불과 친했는데 어느 날 미불이 벼루를 자랑하자 주동이 그 벼루를 감상하다가 물 대신 침을 뱉어 먹을 갈았다. 이에 미불이 벼루가 더러워졌다면서 주동에게 벼루를 주었다는 고사가 주휘(周輝)의 『청파잡지(淸波雜誌)』 권5에 보인다. 주휘는 주동의 증손자인데 『청파잡지』의 위 일화 마지막에 “침을 뱉은 일은 오호신(吳虎臣)의 『만록(漫錄)』에 동파(東坡)의 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唾硯事, 吳虎臣漫錄, 誤書爲東坡.]”라는 기록이 붙어있다.

행동을 정당화하며 이정구에게 이 시를 지어 보냈다. 친구의 집에 놀러 와서 친구가 아끼던 벼루를 훔치고는 변명과 함께 내가 벼루를 가져갔다는 시를 지어 보낼 정도의 친분이라면 그저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박지원과 이덕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은 이정구가 살아 있을 당시 그의 시집인 『선서재시집(蘚書齋詩集)』에 서문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박지원의 경우, 「선서재시집서」를 이정구의 죽음 이후에 「능양시집서(菱洋詩集序)」로 수정해 박종선(朴宗善, 1759~1819)의 『능양시집(菱洋詩集)』에 덧붙이고 『연암집』에 수록해 두었다. 박지원이 최초 작성한 「선서재시집서」는 『겸헌만필(謙軒漫筆)』(단국대 연민문고)에 수록되어 있어 「능양시집서」와의 비교가 가능하다.

아래 인용문은 『겸헌만필』에 수록된 박지원이 작성한 「선서재시집서」(1772년 무렵 작)의 일부이다.

이치중(李時仲, 이정구)의 나이는 겨우 17살인데 詩를 잘하였다. 한 가지 법에 얽매이지 않고 온갖 시체를 두루 갖추어 우뚝이 동방의 대가가 되었다. 성당(盛唐)의 시인이 해서 보면 어느새 한위(漢魏)의 시체를 띠고 있고 또 어느새 송명(宋明)의 시체를 띠고 있다. 송명의 시라고 말하려고 하자마자 다시 성당의 시체로 돌아간다. 아아! 세상 사람들이 까마귀를 비웃고 학을 위태롭게 여김이 또한 너무 심하다. 하지만 치중(時仲)의 정원에 있는 까마귀는 홀연히 붉었다 혹은 푸르렀다 한다.<sup>38)</sup>

이 글은 『연암집』에 수록된 「능양시집서」와 거의 동일하다. 글자의 출입

38) 朴趾源, 『謙軒漫筆』(坤), 「蘚書齋詩集序」. “李君時仲年纔十七, 工於詩. 不纏一法, 百體俱該, 蔚然爲東方大家. 視以盛唐, 則忽焉漢魏, 而忽焉宋明. 纔言宋明, 復有盛唐. 嗚呼世人之嗤烏危鶴, 亦已甚矣. 而時仲之園烏忽紫或翠.”; 朴趾源, 『燕巖集』 권7, 鍾北小選, 「菱洋詩集序」. “余侄宗善字繼之, 工於詩. 不纏一法, 百體俱該, 蔚然爲東方大家. 視爲盛唐. 則忽焉漢魏, 而忽焉宋明. 纔謂宋明, 復有盛唐. 嗚呼世人之嗤烏危鶴, 亦已甚矣. 而繼之之園烏忽紫忽翠.”

이 있지만 비슷한 의미의 다른 한자로 바꾸어 운색하였고, 서문의 주체인 이름만 ‘치중(峙仲, 이정구)’에서 ‘계지(繼之, 박종선)’로 바꾼 채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 동일하다. 「능양시집서」는 박지원의 사유 방식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아온 글인데, 실상은 이정구의 『선서재시집』을 보고 서문으로 작성한 것이다.<sup>39)</sup>

박지원이 ‘우뚝이 동방의 대가라고 평한 인물은 박종선이 아닌 바로 이정구였던 것이다. 하지만 박지원은 이정구의 『선서재시집』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정구를 위해 서문을 써 준 적이 없는 것처럼 그와의 교류 흔적을 지워버렸다. 이덕무의 「능양시집서」 역시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는 실려 있지 않고, 윤광심(尹光心, 1571~1817)이 편찬한 『병세집(並世集)』에 수록되어 있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sup>40)</sup>

그렇다면 이들은 백담시사로 활동했던 10여 년의 기간 동안 이정구와 교류하였지만 왜 그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교류 흔적조차 지우려고 했던 것일까?

「허생전」에서 어영대장(御營大將) 이완(李浣)의 대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작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기만적 태도를 지적했던 화소는 박지원의 진보적인 시선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후 박지원은 「애오려기(愛吾廬記)」을 통해 좀 더 진보적인 사상적 실체를 선보인다. 박지원의 언급을 살펴보자.

『효경』에서 “신체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감히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나’를 이미 ‘나’라고 할진댄, 지금 ‘나’의 터럭 하나를 잡아당긴

39) 김영진, 「朴趾源의 필사본 小集들과 自編稿 『煙湘閣集』 및 그 계열본에 대하여」, 『동양학』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50~51쪽; 이종묵, 「菱洋 朴宗善 한시의 창작 방법과 미학」, 『대동문화연구』 9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313~344쪽; 정민, 『비슷한 것은 가짜다』, 태학사, 2020, 27~42쪽 참조.

40) 尹光心 編, 『並世集』, 『蘇書齋詩集序』(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사본).

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온몸이 편치 않을 것이다. 어찌 내 몸 전체를 들어 ‘나’라고 여긴 경우에만 그러하겠는가. 비록 가느다란 터럭 하나라도 다 ‘나’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요, 장차 사랑하지 않는 터럭이 없게 될 것이다.<sup>41)</sup>

박지원은 한 개인의 자아를 미분화하여 ‘터럭 하나’마저 ‘나’이기에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게 되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을 전개하고 있다. 요컨대 개인의 가치는 육체적 보존상태의 완결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맹자가 말한바 ‘심지(心志)를 보존함’에 달려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그런데 유독 이정구의 죽음에 대해 연민 어린 시선이 아닌 무관심으로 일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실마리를 다음 언급에서 찾아본다.

한갓 과부로 지내는 것만으로는 절개가 되기에 부족하다 생각하여, 왕왕 한 낮의 촛불처럼 무의미한 여생을 스스로 끝내 버리고 남편을 따라 죽기를 빌어,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뛰어들어 죽거나 독약을 먹고 죽거나 목매달아 죽기를 마치 낙토를 밟듯이 하니, 열녀는 열녀지만 어찌 지나치지 않은가!<sup>42)</sup>

박지원은 맹자의 언급처럼 의(義)가 생(生)에 우선하는 가치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의에 부합하는가 여부가 그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이정구의 행동이 ‘심지어는 제 몸을 적멸하고자 하여 ‘나’라는 것을 가합(假合)으로 여기고 사랑을 원업(冤業)으로 여기며 삼강오륜을 끊어 버리고 삶을 보기를 원수 대하듯’한 결과의 표현으로 여겨 부정적 시선을 견지한 것이 아닌가 추론할 수 있다.

41) 朴趾源, 『燕巖集』 권7, 「愛吾廬記」. “經曰: ‘身體髮膚, 受之父母, 無敢毀傷.’ 吾既吾之, 則今夫牽吾之一髮, 而舉體爲之不寧, 豈惟舉吾之一身而爲吾哉. 雖一髮之微, 皆可得以稱吾, 而固將無不愛矣.”

42) 朴趾源, 『燕巖集』 권1, 「烈女咸陽朴氏傳」. “守寡不足以爲節, 則往往自滅晝燭, 祈殉夜臺, 水火鳩纒, 如蹈樂地, 烈則烈矣, 豈非過歟.”

## 5. 결론을 대신하여

효는 본질적으로 ‘능양(能養)’의 기능적 작용을 한다. 노인의 삶을 지탱하는 책무를 자식에게 맡긴 것이다. 물론 『효경』의 언급처럼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라 함으로써 가문의 연속성을 담보할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효의 궁극적 목표라고 천명하더라도, 입신양명을 목표로 할 수 없는 일반 민중에게 적용되는 좀 더 본질적인 목적은 부양에 귀결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바 정조가 “王者之教民成俗, 莫急於孝.”라 한 것도 효의 실효적 기능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부양의 기능이 소멸된 효의 지향처는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효의 첫 단계로 제시한 ‘나라는 존재를 보존하는 책무’로부터 논의를 출발해 본다. 이 명제는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인소로서 개인의 가치를 중시한 발언에서 도출된 것이겠으나, 거시 세계로 시선을 확장해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가치관이 개입된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을 인식한 표현과 다름없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효의 강조는 개인의 영역에서 확장되어 사회적 역할로 변모된다. 맹자가 언급한 “老吾老, 以及人之老.”라는 개념의 출발점에 ‘효’의 개념 설정은 매우 중요한 전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효를 강조하고 효의 정황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 포상하고 상징물로 그 행위를 권면하는 것은 『대학』에서 택한 방법론 즉, 작은 범주에서 획득한 성과를 확장하여 보다 큰 범주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과 같은 효과를 지니게 된다. 다만 이때 효를 판단하는 것은 ‘부양’이라는 기능적 역할에 큰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이정구의 죽음과 그의 무덤 앞에 도달한 언어들에 상당수가 그의 행위가 효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 선별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을 포함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백담시사의 이정구 지우기가 이루어진 사례만을 제시했을 뿐 그 동인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기독교의 원



죄 의식처럼 그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죄의식을 부여한 것인지, 또는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라는 효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조기 탈락한 인물에 대한 징벌적 결단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작용한 것인지 추측만할 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후고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李書九, 『祭挽』 1冊, 규장각, 古4650-152.  
\_\_\_\_\_, 『薑山全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_\_\_\_\_, 『自問是何人言』 1冊, 김윤조 교수 소장(『薑山全書』 수록).  
\_\_\_\_\_, 『惕齋集』, 『韓國文集叢刊』 270, 민족문화추진회(저본 규장각본, 한국고전종합DB).  
\_\_\_\_\_, 『薑山初集』 4卷 2冊(부록포함), 성균관대 존경각, D03B-4004 v.1-2(『薑山全書』 수록).  
\_\_\_\_\_, 『薑山初集』 2冊(乾, 坤), 규장각, 古3447-29-v.1-2  
朴趾源, 『燕巖集』, 『韓國文集叢刊』 252,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종합DB).  
\_\_\_\_\_, 『謙軒漫筆』,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柳得恭, 『冷齋集』, 『韓國文集叢刊』 260,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종합DB).  
李德懋,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 257~259,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종합DB).  
尹光心 編, 『竝世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김영진, 「박지원의 필사본 小集들과 自編稿 『煙湘閣集』 및 그 계열본에 대하여」, 『동양학』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43~71쪽.  
나탈리 앤지어 저, 햇살과나무꾼 역, 『살아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 해나무, 2010, 1~374쪽.  
유득공 저,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 『영재 유득공의 영재집』 1, 학자원, 2019, 1~446쪽.  
이종묵, 「菱洋 朴宗禧 한시의 창작 방법과 미학」, 『대동문화연구』 9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313~344쪽.  
전수경, 「潛夫 李鼎九의 생애와 시문에 대한 일고찰-薑山 李書九와의 교유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98, 동방한문학회, 2024, 219~262쪽.  
정민, 『비슷한 것은 가짜다』, 태학사, 2020, 1~480쪽.

## ABSTRACT

The Vanished Body and Words of Consolation  
 - Focusing on the Debate Surrounding the Death of Jambu,  
 Lee Jeong - gu -

Jun, Su-kyung

This paper examines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abstract concept of "filial piety" in premodern society and explores the diverse responses and behaviors that emerged from this shared value among its members. It particularly focuses on the behavioral guidelines established between the declarative maxim from *Xiaojing*(孝經) that states, "The body, hair, and skin are received from one's parents, and one must not dare to harm them, as this is the beginning of filial piety," and the rule that emotions should be tempered, as expressed in the phrase "Joy without excess, sorrow without injury." Through this framework, the paper questions whether the modern understanding of filial piety, as a legacy from premodern times, has been fully inherited and developed in contemporary society. Additionally, the study considers how unusual and contentious cases that deviate from typical examples of filial piety should be evaluated.

By exploring the complex nature of filial piety in premodern society, the paper highlights various instances where subtle divergences in perspectives arise and intersect.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life and death of Yi Jeong-gu, an 18th-century figure from late Chosŏn, and the collection of mourning texts dedicated to him, *Jeman*(祭挽). Born posthumously, Yi Jeong-gu lost his mother at a young age and lived in constant longing for his parents. He ultimately ended his life by throwing himself into a river at the age of 28. The debate over whether his death fell within the bounds of filial piety sparked considerable discussion at the time, with differing opinions from those who mourned him and those who did not, as evidenced by the mourning records in *Jeman*.

Through the analysis of Yi Jeong-gu's life and death,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complexity of filial piety in premodern society and the various perceptions surrounding it. By reassessing the core understanding of filial piety, it aims to examine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he concept between premodern and modern times.

**Key Words** Jambu Lee Jeong-gu, *Jeman*(祭挽), Baektapsisa, Filial Piety, Suicide (Death), *Ilŏngnok: Daily Records of the Royal Court and Important Officials*(日省錄)

논문투고일: 2024.10.15.

심사완료일: 2024.11.07.

게재확정일: 2024.11.17.